

승리의 생활 시리즈 6

승리의 생활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James W. Knox 지음

고 정 인 옮김

승리의 생활 시리즈 6

승리의 생활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21. 5. 8

지은이 | James W. Knox

옮긴이 | 고정인

펴낸이 | 김영균

디자인·편집 | 김화영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com

■ ISBN 979-11-971322-4-7

■ 정가 5,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 본서에 인용된 성경구절은 킹 제임스 흠정역 5판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1

이 책에서는 로마서 6장부터 8장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3개의 장을 통해 성령님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이 겪는 큰 갈등을 우리 앞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세상이나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승리가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에서 되풀이되는 주제는 생명과 사망입니다. 이 세 개의 짧은 장에 생명과 관련된 단어가 19번, 그리고 사망과 관련된 단어가 3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세상이 사고팔

고, 심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행동이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될 정도의 존재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의미 있어진 것입니다. 겉보기에 작아 보이는 것들도 모두 우리에게 활력을 넘치게 하며, 중대한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세 장을 매우 빠르게 공부할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부적인 설명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각 성도에게 매일 주어지는 완전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모두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 구절들이 이번 주제를 매우 잘 요약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심겼고 묻혔으며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 역시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사건들을 실제로 겪은 사람들로서 살아갈 것인지 아닌지, 또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로마서에서 자주 나오는 “여기다(reckoning)”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너그러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그분께 바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도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은 바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으며 죄악의 해로운 결과에 대한 승리의 삶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그들이 따라가고 싶은 길이라고 여깁니다. 그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들은 지옥의 불구덩이로부터 도망치기 원했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은 확신했지만, 그분에 대한 사랑이나 충성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주시는 다양한 축복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승리 덕분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죄를 제거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능성이 생깁니다”라고 말했지,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몸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부활한 생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

시겠습니까? 이 파괴적인 육신을 계속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괴적인 육신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일 이 질문에 직면합니다. 피하고 피해도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유흥과 스트레스, 의무와 관심, 사고파는 것, 심기, 시집가고 장가가기 등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매 순간 생명과 사망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계속 잊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루 하루 맞닥뜨리는 다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생명과 사망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1절-7절에서 확립된 사실에 근거하여)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으며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끝난 후에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결과와 다시 태어남으로 얻는 이득을 하늘나라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멀리 제쳐놓고, 지금 이 땅에서는 회심의 결과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충만함을 이 땅에서 즉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혼을 구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죽을 때나 휴거가 일어날 때 당연히 그곳에 가겠지만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죽으셨고 묻히셨으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우리는 죄와 사망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은 따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삶은 사망이나 (로마서 6:23),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5:12).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을 때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죄와 생명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함께 결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모순된 생각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죄와 부활의 생명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분리하신 것을 연합시키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합치신 것을 분리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워지며 승리를 잃게 됩니다.

생명과 죄가 함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와 함께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삶, 가족, 교회, 그리고 관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죄와 사망이 한 묶음이며, 생명과 그리스도가 한 묶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하실 거예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두 진리이긴 하지만, 거룩한 앞뒤 문맥은 모두 삭제시킨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주시도록 하는 수단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이유는 주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생명이 아니라 사

망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아니라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이 진리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명령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11절).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자와 내가 연합할 때 나는 죄에 대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실을 진리라고 여기고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를 어길 수 있는 기회를 들고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의 구원을 죄를 짓기 위한 변명이나 정당한 이

유로 사용할 때, 그들은 성경적으로 또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우리가 살아 있다”라는 것 역시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일으켜졌다” 역시 그냥 망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소유하고 있다” 역시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여기라고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습니다.
-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살아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모든 기회, 그리고 모든 선택마다 이 진리를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택에 살아 있으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선 그들이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며,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그분을 주님으로서 신뢰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봉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불 호수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보장됩니다.

새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몇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이야기는 앞서 말한 복음에 규칙이나 계명을 몇 개 더 추가해 강조하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날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들을 위해 무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매일 매 순간을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 주며 앞으로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을 수 있는 힘이 그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 안에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그는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 세 단계를 로마서에서는 “여기다(reckon)”라는 한 단어로 자주 요약합니다.

(reckon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 보면, “거래 상 받은 물건이 숫자가 정확한지 회계 보고를 하다”, “순서대로 정확하게 서술하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산한 결과가 어떠하다”, “(값이 어떠한다고) 추정하다” 같은 숫자와 관련된 의미들과 “~라고 생각하다”, “~라고 여겨지다” 같은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하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글에서 생각, 상상, 주장 등으로 번역한 것이 원문에는 전부 reck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일관적으로 “여기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글의 문맥 상 “여기다”만 쓰기에는 어색한 부분이 많아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 역

주)

여러분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나요?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셨나요? 차에 가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휘발유 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셨나요? 잔디를 깎거나, 아이들과 놀거나, 쇼핑을 하거나, 낚시를 가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 있다고 여겼나요?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기는 했나요? 그 생각을 해 보긴 했나요?

일하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교실에 앉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학교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거실에서, 가게에서, 부엌에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죽었다가 묻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나요?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은 해 보셨나요?

우리 주변은 봐야 할 텔레비전 프로그램, 지켜야 할 약속, 해야 할 게임, 파내야 할 거레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바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에 몰두하느라 방주에 동물들이 줄을 서서 들어 가고 있던 것을 무시했던 사람들처럼 더 중요한 일들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재앙

을 내릴 짙은 구름이 소용돌이 치며 몰려 오는 것을 무시했던 것처럼 세상에 닥칠 재앙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지도,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12절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받는 순간 일어나는 완전한 반전에 대해 기록합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닌 죄를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와 같은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저 습관일 뿐이에요... 이진 중독이라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평생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 성격일 뿐이에요... 이진 다 제 어린 시절이 불우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등과 같은 변명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

리가 허락해야만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힘으로 승리의 땅에 서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통제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게 저서 죄를 짓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 있다고 여기지 않고 여전히 죄 아래 살고 있다고 여길 때만 우리는 넘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도 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를 용서하실 거예요.” 또는 “글쎄,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러한 이들을 격려해주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비성경적인 대화는 모두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나눌법한 대화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산 자들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이나 나눌법한 대화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사망의 삶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자신을 변명하거나 격려해서는 안되며, 그리

스도 안에서 살아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라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권고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휴거 때에 그들을 죄로부터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현재 삶에서는 돼지 우리 안을 철벽거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이런 모습을 벗어나려야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13절). 보십시오.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 성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통제해야 하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야 하며,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어두운 곳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육신은 강력한 원수이지만 우리 안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13절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죄에
게 굴복할지 말지가 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행
동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분노, 괴로움, 정욕,
좌절, 공허, 혼란, 분노, 의심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들이
죄를 짓게 자신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 감정을 드리
시겠습니까? 우리의 계획, 목표, 상처, 수치, 시간과 날을 어떻게 다루
시겠습니까? 그것들을 죄에 굴복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바
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
다!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이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주님께서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하도록 그분의 능력을 사
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각 지체는 우리의 권력 아래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
서 각 지체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통제하고 일하실 것이며, 승리를 원
하는 모든 사람이 그 승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항상 슬픔과 파멸만을 가져 왔던 과거의 일상을 대하던 똑같은 태
도, 똑같은 반응, 똑같은 접근 방식으로 새롭게 얻은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삶을 대하지 맙시다. 더 이상 사망한 것 같은 상태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이 그분의 복된 뜻에 전적으로 바쳐지기를 바랍니다.



14절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그분께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정사들과 권능들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자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만약 죄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을 일정 기간 동안 지배해 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의 매력에 스스로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마치 죄악을 기뻐하는 육신의 울부짖음을 예상하신 것처럼 주님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 속박받는 것 또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정의한 대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은혜에는 율법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큼니다! 우리는 “주의 율법,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라는 찬송은 있어도, “놀랍다 주님의 큰 율법”이라는 찬송가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놀라운 힘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죄 따위에 굴복하기 위한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15절). 대형 교회는 이에 대해 “예.”라고 말합니다. 현대 자유주의자인 목회자는 “예.”라고 말합니다. 백만장자인 라디오와 TV의 인기 설교자들은 “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해도 된다고 말한

다면,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사랑과 은혜는 의와 거룩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께 불순종해도 되는 허가증이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성경대로 생각을 바꾸고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누구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건 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는 통제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저주를 하며, 거짓말을 하고, 여자를 쫓아다니고, 클럽에 다니며, 욕을 하고, 이성을 유혹하고, 다른 죄도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길과 시대의 유행을 따라갈 것이고 강에 떠다니는 잎사귀와 같을 것입니다. 유혹이 다가왔을

때 거부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실패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절대적 승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6절). 신약의 서신에서 종종 성령님은 놀라움을 나타내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기록된 진리가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런 당연한 것까지 말해줘야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거나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요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그것의 결과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강해집니다.

셋째,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넷째, 순종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는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이 서신의 수신인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 삶의 끝에 있을 하늘나라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죄는 결혼을 사망으로 이끌 수 있지만, 순종은 결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죄는 가족을 망하게 할 수 있지만, 순종은 가족을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죄 때문에 교회의 교제에 사망이 생겨날 수 있는 반면, 순종 덕택에 서로 사랑하며 의로운 것이 생겨납니다.

의나 사망은 어떤 것에 순종했는가에 따라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로 선택하면서 의로운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7절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희망적인 찬양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관한 진리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했습니다.

죄를 섬기며 살아가던 과거 종의 삶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이 놀라운 자유를 알기 위해 마음으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인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하나되게 하시

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쉽고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며,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사람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둘 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죄입니다. “3번”이나 “4번”은 없습니다. “둘다 고를래요” 같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죄, 단 두 개의 선택지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성경에 타협안이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는 40%, 죄에게도 40%, 그리고 그 외에 무엇이든 간에 20%에게 순종하면 안되나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선택권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온라인에서 무엇을 볼지 결정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로 상처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지불해야 할 돈이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생각, 말, 행동 및 감정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동시에 사탄이 아담과 이브와 마주쳤던 것만큼이나 극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생명의 삶입니까, 아니면 사망으로 가득 한 긴 날들입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사악한 뱀도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23절에 요약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8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리즈의 서문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자유하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유지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며 의롭게 되기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19절). 우리의 본성은 구원받지 않았으며 육신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육신은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다시 태어난 이후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

음 3:6).

1. 시험, 유혹, 정욕이 끝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2. 내면에서 의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3. 육신이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에 반항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4.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길을 따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해 주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 들었습니다.

모든 변명을 멀리 치워버려야 합니다. 육신은 의의 큰 원수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구원자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하기만 한다면, 육신은 절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9절). 이 주제에 관해 가르칠 때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로 시작하는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그 길을 틀림없이 명확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보고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전에 너희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우리 과거 모습을 한 번 떠올려 봅시다. 죄를 짓는 방법을 알아내는 게 어려웠나요?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어떻게 죄를 지으라고 설명해 주던가요? 어떤 죄를 짓고 싶었을 때 단순히 그 죄악된 길을 따라갔거나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기꺼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한 죄를 짓고 나니 그 다음 단계의 죄는 금방 지을 수 있지 않았나요? 우리는 죄를 짓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거나 훈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죄를 짓기에 필요한 것은 단지 욕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만큼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간단하다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필로폰(히로뽕)을 생산, 유통 및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 약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구입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알아낼 수는 수 있지만, 그 약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모르며 그러한 수고를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 손에 그 마약을 쥐여준다면, 저는 어떻게 그것을 투여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할 테지만 제 손에 그것을 쥐고 있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내일부터 필로폰을 해 보고 싶다고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약물을 생산, 배포 및 사용하는 많은 사람 중 하나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볼 것이며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내가 좋은 물건을 구한 것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약물을 오랫동안 투여해본 사람에게 약물 투여 방법과 그 영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며 어쩌면 약물을 직접 만드는 법을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제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저는 제 자신을 사망에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두 문단에서 “필로폰” 대신 아무 죄나 대신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동네에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그러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 수 있는지 모른다면, 그건 당신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그 정도까지 헌신할 수 있는지 모른다면, 그들에게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그러한 삶의 방식이 제공된다면, 그들은 그렇게 사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마약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런 삶의 방식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 내일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삶을 그분께 바친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고, 얼마만큼 나눠야 하며, 그분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방법과 그분께서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본 모든 사람은 의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 한 번 했던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간단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20절).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욕망과 헌신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 받기 전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뜻과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죄에 대해 아무런 욕망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죄의 뜻과 방법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21절). 이 구절은 타당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저지른 죄들을 부끄러워 하나요? 우리가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뻔했던 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게 한 것들을 여전히 약간은 사랑하며 그것들에 약간은 충성을 바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1970년대에 구원을 받았을 때,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기 원하지 않았으며,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비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았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죄를 지으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 죄를 인터넷에 올리고 목회자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죄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소수의 설교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할리우드 영화의 목록을 함께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감을 주는 성경 구절과 자신이 최근에 찍은 비키니 사진을 나란히 업로드하는 사람

도 있습니다. 도무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아마도 그런 죄를 지은 것이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것과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신은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집트의 길을 선호하는 육신적인 혼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네가 기뻐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누구든지 너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욕이 아니라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의의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22절). 아마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즉시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단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분의 구속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냥 자유롭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인(죄)의 소유권에서 풀려 난 순간, 우리는 다른 주인(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길 원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 지옥에서 구해 주시기만을 원하면서 구원받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참견도 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면 그분의 주권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교회도, 백성도, 규칙도, 그리고 그분의 설교자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가정이나 가족 또는 그분이 기대하시는 행동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역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노예입니다. 그분 때문에 저는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라고 투덜댑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항상 무언가의 노예였습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저는 그저 자유롭고 싶어요.”라고 투덜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없고 한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섬기기로 선택하여 그 대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망을 거두거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선택하여 그 대가로 사랑, 기쁨, 평화, 만족, 생명, 그리고 수많은 다른 축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서는 해방되었으면서 하나님께는 종이 되지 않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는 종이 되었으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지 않으신 채 우리를 소유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소유하지 않으신 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혼을 구원한 위대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 대신 하늘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수만 번도 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그 진리를 설득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다른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태어났고 하늘나라로 향하고 있으며, 보혈에 의해 씻겨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님은 죄의 삶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선택하지도 말고 그것에게 복종하지도 말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구속의 날까지 봉인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아들이셔서 완성하신 사역을 단순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십시오.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가지고 있게 된 것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4).

확실히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길이 가장 좋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분의 모든 명령에 안전하게 순종하고, 그분의 가장 작은 지시에도 자신을 내어주며, 그분의 뜻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을 때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갈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사망과는 완전히 반대이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그분은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2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갈 때 이런 안내 방송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곧 심각한 난기류로 인해 기체가 많이 흔들릴 예정입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단단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몇 구절을 읽으며 토론할 때 성경은 사람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쓰였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 저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저에게는 기록된 내용을 충실하게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1-2절).

이 구절을 읽는 그 누구도 이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불쾌하거나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뜻만큼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결혼, 이혼, 재혼에 관해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다양한 의견을 다루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일부 독자가 당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행했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예외 사례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해 여기에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진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의 목적은 남자와 아내의 연합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진리는 이미 성경 전체에 걸쳐 확립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에 관한 주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위대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시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알 수 있는 완전한 기준인) 율법은 우리 개개인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배합니다. 율법과는 이혼할 수도 없고, 그 결혼을 무효로 만들 수도 없으며, 어떻

게 해 볼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과 개인은 평생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율법은 머리, 주인, 그리고 통치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협상은 없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같은 것도 없으며, 상호 존중과 같은 것도 없습니다. 율법은 각 개인의 삶에서 우위를 차지합니다.

(참고: 로마서 7장의 “율법”은 로마서 1장-3장에 의해 확립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히브리서 및 성경의 다른 곳에서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서 국가를 세우고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법령의 모음을 언급하는 반면, 로마서의 첫 세 장에서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또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주제로, 결혼한 모든 여성은 남편이 살아 있는 한 그에게 구속됩니다. 죽음 외에는 그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율법이 개인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립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반박하고 싶으시다면, 반박하는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7장 1절-2절에 기록된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하고 슬픈 사건,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저에게 보내주셔도 되고, 본인이나 친구 또는 가족이 그렇게 (이혼

을) 해야만 했던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 우리의 감정을 잠시만 옆에 내려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3절).

한 여자가 결혼한 남자에게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지지해줄 친구와 목사를 찾고, 자신의 행동을 승인할 법적 문서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7장 3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읽어 본 구절들이 이런 내용이라는 점에 동의해 주시기를 독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결혼에 관한 이 구절과 저 구절에 대해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결혼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했다면, 그와 함께 펼쳐질 아름다운 진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4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지배하는 배우자였습니다.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신 방법은 없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실패할 때에는 정죄하고 혼을 냅니다.

종교를 가지면, 우리 삶에 두 번째의 관계가 생기게 되긴 합니다만, 첫 번째의 삶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반항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면 우리가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할 뿐, 그 관계를 끝내주지는 못합니다. 이는 율법이 악하거나 율법의 요구가 불공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4절 이후의 구절들은 오히려 율법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율법과 죄인은 처음부터 어울리는 짝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죄인과 거룩한 계명의 연합은 결코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강인한 품성을 지닌 의로운 남자와 연약한 여자가 결혼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족히 제공해주었고,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으며, 그녀에게 쉴 수 있는 집, 음식, 의복, 심지어 부까지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수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그 남자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무에 너무도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결점이나 죄를 찾을 수 없었고, 그가 제공해주는 것이나 그의 규칙에 대해 진정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미워했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신약이 죄인과 하나님의 계명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규칙은 옳고 유익하나, 우리가 그러한 고귀한 원칙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규칙은 우리에게 올바르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규칙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으며, 우리도 규칙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죄 많은 사람을 주님의 계명으로부터 끊지 못합니다.

어느 날, 그 우울한 여자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자신의 의지와 부는 주었지만 마음은 주지 않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 남자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남편에게 결투를 신청할 것이고 이기는 사람이 그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에나 나올법한 로맨스와 용맹스런 모습 같지만,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똑같이 하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장대한 결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14). 이 전투는 너무나도 치열해서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 둘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4:9). 그 결과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된 것입니다. 죄인과 율법의 관계에서 율법은 이제 죽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독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율법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법적이고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 놀라운 새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두고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 자구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배우자와 사별한 분들을 불쾌하게 할 위험을 무릅쓰고 저는 여기에 서의 가르침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녀가 시체를 거실에 놔둔 채 죽은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리고 죽은 남편의 옷을 갈아입히며 죽은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테고, 사망한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이로울 것이 전혀 없고 헛된 것이라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이 예시는 구원받은 남자나 여자가 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의 연합을 끝내셨기 때문에 이전처럼 죄와 함께 하는 삶을 계속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런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한 말이나 누군가가 한 일 때문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며, 이웃이나 건강 상태 때문도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풍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새로 태어난 덕택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만족을 놓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이용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

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7-11절).

이 구절들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기록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그분의 뜻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려고 사람에게 대한 그분의 규칙과 규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 법령을 제정하신 주님처럼 순결하고 깨끗하며 의롭고 품위 있고 축복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성한 계율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그것들은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어느 정도 노력했지만 비참하게 실패했으며, 그분께서 그 기준으로 우리를 헐박하고 정죄하고 괴롭힌다고 느꼈으며, 결국에는 율법의 지배와 완전하신 주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죄의 삶을 피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반역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죽이도록 고안된 무기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를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이나 그분의 계명이 아니라 오직 죄, 항상 존재하는 죄였습니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12-14절).

오해가 없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잘못이 죄인에게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의 한 편에는 거룩하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선한... 선한... 영적이나... 와 같은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 편에는 사망을... 죄가... 죄로... 사망을... 죄로 충만하게...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와 같은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계명의 관계가 이렇게 끔찍한 이유는 서로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는 이를 “양립할 수 없는 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자신을 발전시킨다고 해도 이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또한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의 조화를 이루려고 결코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과 착한 행위, 교리 준수, 다양한 의식 수행,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 등등을 강조하는 종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는 절대적인 순종만 용납될 뿐이며, 아무도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와 율법 사이의 연합을 영원히 끝내셨고,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자신과 연합시키십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고(에베소서 2:15),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갈라디아서 5:22-23).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죄를 섬기고 돌보시겠습니까

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요, 아니면 죄의 썩은 잔해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나가기겠습니까? 또한 열매 맺는 승리 속에서 인생의 좋은 때와 어려운 때를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연인의 생명 없는 몸을 질질 끌고 다니며 힘든 인생을 더 힘들게 사실 것입니까?

내일 주님께서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아내는 성경적으로 재혼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재혼을 했는데, 새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배우자보다 얼마나 더 저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탄식과 불만을 종일 털어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녁 내내 앉아 제 사진을 보는 아내를 바라보거나 저와 아내가 함께했던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그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행동은 새로운 결혼 생활에 매우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싫어하면서 죄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래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그분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보혈로 사신 자들이 죄와 사망이 벌어지는 장소, 장면, 활동, 태도를 갈망하는 것을 그분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전 남편을 얼

마나 그리워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교회나 설교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 속에서 걷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의 혼인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공부를 위해 로마서 7장 14절-25절로 넘어가서, 주님께서 다윗, 이스라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고집스러운 자녀들에게 주신 승리를 그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 그분께서 치르셔야 했던 대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열두 구절에 1인칭 대명사(나)가 서른아홉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자아에 사로잡혀 있다면 반드시 패배하고 맙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의 탄식을 기록해 알려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집착하는 것은 죄에게 헌신하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열망과 자신만 생각하는 태도가 합쳐지면 그 누구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문제는 율법이나 계명 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든지, 우리가 구원받은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혹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든지, 우리의 이전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빨리 이집트의 현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이전 삶이 불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또한 파라오의 채찍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곳에서 먹던 음식에 대해서는 좋게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비참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 마음을 품고 있지만,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육신에는 소망이 전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에게 자신의 지체를 내어주지 않고 죄의 율법에게 설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실 것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부터 8장 또는 유혹과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에게 지적하는 대신에, 그런 승리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들에게 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죄를 짓지 않고 살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매 순간 구원자에게 순종하고 육신을 거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유혹을 한 번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5년치 결정을 한 번에 내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선택을 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낼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런 반론이나 변명을 제기하는 이유는 대개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

꺼이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싫고, 빚을 갚는 게 싫어서 갚지 않고, 어떤 사역에 참여하기 싫고, 그만두기 싫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는 무능력함이 아니라 원치 않는 마음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형제가 말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술을 끊을 수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음번에 마실 술잔을 한 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한 잔만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렇게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술병이 한가득 담긴 트럭을 그 남자 집으로 가져와서 그의 입에다 호스를 넣고 그의 목구멍에 어마어마한 양의 맥주를 부어 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술을 끊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는 그 단 한 번의 순간만 잘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한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자매는 지금까지 즐겨 입어 온 노출이 심한 원피스와 소셜 미디어에 즐겨 올리는 험담이 잘못되었다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생애 동안 지금까지 즐기던 이 도덕적이지 못한 이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걱정

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옷장을 여는 때 순간 한 개의 단정한 원피스를 골라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한순간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거나 몇 시간 동안 SNS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도 있지만, 가치 없는 것을 읽고자 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읽으면 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는 무언가를 인터넷에 올리는 대신 기도하기로 결심한다면 게으름과 허영심에 대해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입이 거친 한 형제는 “저는 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겠지만 면접을 볼 때, 혹은 존경받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는 완벽히 신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시는 비속어를 쓰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다음번에 입을 열 때 욕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유혹이 다가오는 때 순간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14). 이 말씀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간증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3

로마서 8장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를 인용하고 여기에서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1절).

구원이 조건적이며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후반 구절은 너무 지키기가 어렵다며 피해버립니다. 반대로 구원의 안전함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너무 혼란스럽다며 멀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들이 이 구절을 완성된 사역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적인 것처럼 읽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 “에게”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우 우리는 정죄 받지 않습니다.
2. 정죄함이 없나니 - 이것이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과 맺고 있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3.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그로 인해 우리 삶과 영원한 운명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 남편의 죽음으로 묘사된 육신은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잃었습니다.
4.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살기 위해 기도하거나 기다리거나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모두 일어난 사실이며 현실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2-4절).

위 구절들은 똑같은 위대한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무익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법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영광스러운 자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죄없이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의로움으로 죄를 정죄하셨고, 그 덕택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율법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관계의 현실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남편이 죽은 후, 두 번째 남편이 그 과부에게 구애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습니다. 남편은 “나의 모든 소유가 당신의 것입니다.” 또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재물을 당신께 맡깁니다.”라고 서약합니다. 이 서약은 결혼 예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자주 사용하는 서약이지만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약을 지키려는 의도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서약의 완전한 의미를 알고 계시며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을 때, 그분께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덕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께서 정죄받으신 것 이상으로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3:24).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1:30).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0:28).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골로새서 2:9-10).

다시 우리가 읽던 구절을 보면 율법의 의는 우리에게 의해 성취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롭게 걷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5-8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죄가 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순

중, 고민, 갈망)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영원한 것들에 대해 생각(순종, 고민, 갈망)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실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삶에 대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을 추구하고, 그들이 즐기도록 주어진 새로운 삶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구원자께 내어드렸을 때 평화로운 삶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길에는 생명이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후서를 통해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 간음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고 사망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것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함과 승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생활과 좋은 가족을 원한다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결혼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행복한 교제를 원한다면 그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선한 축복의 일부가 죽게 되

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오직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은 거룩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을 주고 변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있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며 성령님을 가진 사람은 모두 육신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구속된 모든 혼은 성령님 안에 거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렵게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올바른 방향인) 영 안에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방향인) 육신적인 것들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반으로 찢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신 일은 그들이 예수 그

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지만, 사망과의 관계에 대한 계속 되는 갈망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구원 받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빠가 나를 미워해요... 엄마는 하루종일 나한테 짜증만 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광신도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불합리해요...” 등등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지만, 그들 주변에는 찬양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즐겁고 다시 만나 교제할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은 구원받음으로써 단순히 지옥의 불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힘들 수 밖에요.

그들 주변에 있는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있으며, 감사함으로 넘쳐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분을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다해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13절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구원 받았다면,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행하셨으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빛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육신에게 아무런 빛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영원한 생명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음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구절을 볼 때, 주님께서선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거라고 경고하시거나 우리가 그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8장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생명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고 있으며, 이 땅은 죽은 시체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할 때, 그들의 가정생활은 생명이 되고, 직업 역시 생명이 되며, 가족도 생명이 됩니다. 재정, 교회, 관계 등 모든 것이 풍성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육신의 길을 찾으면 결혼생활은 죽게 되고, 아이들은 길을 잃으며, 나쁜 습관이 덕을 갇아 먹고, 의심이 믿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또한 돈을 낭비하게 되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며, 교회는 분열됩니다. 이 모든 것과 관련 없던 사망이 마음껏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의 긴 구절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 망을 몰고 오는 근원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로서 자신과 대화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기다리는 놀라운 미래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라고 네 번이나 명 령하셨습니다.

로마서 6-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협박을 기록한 게 아 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호소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 하는 분이시며 모든 삶과 기쁨이 그분에게서 온다는 것을 증명해주십 니다. 주님은 우리로부터 이 축복을 빼앗아 그 자리에 사망을 대신 주 는 원수를 조심하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 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 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런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전 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 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 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

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주님은 로마서 1장 이후 처음으로 그분의 창조물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은 창조물들까지도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조된 동물들도 불의로 인한 결과로 괴로워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범죄에 참여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결과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육신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 받았고(히브리서 10:39), 우리의 영이 구원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고린도전서 5:5),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에베소서 1:14; 4:30). 휴거 전까지는 육신에서 태어난 것은 그저 육신일 뿐이며,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요한복음 3:7). 우리는 그 큰 날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26-27절).

우리의 영적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주는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 인간의 해석만큼, 우리의 영적 이해 능력 부족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만약 이 구절이 따로 떨어져 기록되어 있었다면, 아마 그 의미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장에 걸쳐 육신을 이겨내고 부활의 승리를 얻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돈을 위해 기도하며, 성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 대하도록 기도하고,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기도합니다.

아무 교회나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이 부탁한 기도 제목들을 읽어보십시오. 그 목록에는 건강 문제와 관련된 수십 건의 기도 요청과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에 대한 수많은 기도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회의 일들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도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 요청은 없습니다.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바꿔 달라는 기도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간증하지 못하는 겁쟁이인 자신에게 용기를 달라고, 남들에게 기쁘게 나눠주지 못하게 하는 탐심을 없애 달라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고쳐 달라는 기도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생의 많은 일들은 깊게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1:22절-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자,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하늘로 올

라가서 천사들과 함께 왕좌 주위에서 기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마을로 들어가서 다시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제가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제게 가장 좋은 것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히7:25)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성령님의 기도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 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그들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로 올려드립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9절)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과 완벽히 조화를 이룹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그분께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

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13절.)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 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15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7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0-22).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24절).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 기도하셨습니다.

- 완전한 기쁨 (13절)
- 세상에 있는 동안 죄를 짓지 않는 것(15절)
-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는 것 (성화) (17절)
-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 (20-22절)
-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거하게 되는 것 (24절).

우리의 기도 제목과 비교해 봅시다. 정말 많이 다르지 않나요?



이 맥락과 방향을 마음에 새긴 채, 반쪽만 인용되는 또 다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이 작은 부분은 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간에 하신 말씀은 보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의미로만 이 구절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문맥에 맞게 이 구절을 읽어야 하고 그것이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제시된 진리에 대한 완벽한 결론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

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8-30절).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분께서 의롭게 하신 모든 사람을 그분의 아들처럼 만드시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적지는 그분께서 알고 계신 모든 사람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수하신 의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결과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행하시거나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의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 쓰일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보고,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다른 목적지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게 최고라는 것에 동의할 때,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 데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과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정

확한 형상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정확한 형상으로 변화시키
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풍성
한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
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하늘이나 땅의
어떤 힘도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원하지 않는 마음뿐입니다.

이 복된 진리는 32절-34절에서 계속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
니하시겠느냐? (32절).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33, 34절).

이 일련의 진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의 왕좌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또는 의롭게 된 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내에서 봤을 때) 그분께서 중보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완벽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님과 의견을 나누고 동의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부터 은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문제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허가증이라고 말하거나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의지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율법에 기록된 의로운 요구를 충족시키시기 위해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의 범법으로 인해 깊이 고통받으셨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께서는 과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으며,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살아 계시고, 그분께서는 미래

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 내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될 때 우리 역시 이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은 우리의 혼을 향한 예수님의 위대하고도 끊임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그 삿, 그리고 범법과 그것의 열매를 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한가득 싣고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주님보다 죄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35-39절).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나 살리라.

그러면 내 인생은 행복은 무척 행복해지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나 살리라.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하나님.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 날 대속하신 예수께(I'll live for him) 후렴구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섬김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 커백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1000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2	13000
75	로마서 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80	사무엘 킵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 수준의 생활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83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종욱	168	7000
84	영의 세계	LARKIN	160	7000
85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James W. Knox	40	1000
86	칭의에서 성화로	김영균	102	5000
87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전종욱	294	8000
88	믿음 사용 설명서	Linton M. Smith	96	4000
89	솔로몬의 인생보고서	전종욱	384	14000
90	룻기	전종욱	144	5000
91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	김영균	56	1000
92	바울의 기도	W. H. Griffith Thomas	160	7000
93	승리의생활 ❶ 다윗의 실패	James W. Knox	176	7000
94	승리의생활 ❷ 광야 이야기	James W. Knox	104	5000
95	승리의생활 ❸ 금송아지 사건	James W. Knox	124	5000
96	승리의생활 ❹ 의롭게 사는 법	James W. Knox	96	4000
97	승리의생활 ❺ 건전한 교리	James W. Knox	120	5000
98	승리의생활 ❻ 승리의 생활	James W. Knox	96	4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

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옮긴이 **고 정 인**

- 연세대학교 영어학석사
- 한마음미션
- 역서 : 영의 세계, 믿음 사용 설명서, 다윗의 실패, 광야 이야기,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의롭게 사는 법, 건전한 교리

